

포장 물류 표준화 및 합리화 주력

서도찬 / (주)한국존슨 패키징사업부 차장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것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제가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주위 계시는 선·후배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81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주)한국존슨 서도찬 차장은 “한국이 포장기술분야의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도찬 차장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포장학 석사학위를 취득, 대학원 과정 중에 인턴 자격으로 General motors와 Toyota Automotive manufacturing에서 자동차 부품포장에 관련한 업무를 했다. 한국컨테이너풀(주)에서 자동차 박스풀시스템을 기아자동차 3개 공장(소하리, 화성 그리고 광주)에 적용했던 그는 현재 (주)한국존슨에서 가정용살충제, 방향제, 세정제, 식품용기생활용품 등의 포장 및 제품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포장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힌 서 차장은 대학원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과 실무에 경험한 내용, 시중에 나와 있는 포장관련 서적을 통해 약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했다.



그는 포장기술사 준비를 통해 “포장 각각의 분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기술사 시험문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포장의 전분야에 걸쳐 고루 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도 표했다. 국내 포장

개발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포장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관련협회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서 차장. 그는 지난해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마스트플랜 및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서도찬 차장은 앞으로 한국존슨의 제품 포장개발에 역량을 좀 더 발휘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미약하지만 국내 포장기술개발에 일조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택배업계, 전자제품업계 등의 Supply Chain System에서 포장물류 분야의 표준화 및 합리화를 위해 주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서도찬 포장기술사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